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일자리 공고 9백만개 상회... 3개월래 최고치
- WSJ: 그만두는 미 근로자들 줄어들고 있다.

#### [세계 경제]

- Bloomberg: IMF, "2024년 세계 GDP 3.1%, 미국은 2.1% 예상"

#### [부동산]

- WSJ: 작년 11월 미 주택 가격 상승 가속화
- WSJ: 미 최고급 고층 사무실 빌딩 침체

#### [오일]

- Bloomberg: 유가 이틀 연속으로 떨어지다... 수요 둔화 전망이 원인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운송 업체들,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 겪다
- Bloomberg: UPS, 1만2천여명 구조조정과 사무실 근무 계획 중
- WSJ: 토요타,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기업 위치 지키다
- WSJ: GM, "올해 실적 전망 낙관적"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US Job Openings Rebound Above 9 Million, Highest in Three Months**

##### **미 일자리 공고 9백만개 상회... 3개월래 최고치**

- 지난 12월에 미국 일자리 오픈이 기대치 않게 높았다. 3개월래 최고치. 강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다.
- 오늘 발표된 연방노동통계에 따르면 12월 일자리가 8백만개로 증가했는데 이는 8백90만개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.
- 이는 가장 큰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채용 공고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.
- 교육 및 보건 서비스와 제조업도 채용 공고가 증가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# **WSJ: Fewer Workers Are Quitting. Here's What That Means for the Economy.**

**그만두는 미 근로자들 줄어들고 있다.**

-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작년에 근로자들이 이직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. 즉, 노동시장의 자신감이 줄고 있다. 2021년과 2022년에는 노동자 부족현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깡충 뛰었다.
- 작년에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그만둘 일자리는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60만개 줄어든 12%가 감소했다.

WSJ 기사

**[세계 경제]****Bloomberg: IMF Lifts World GDP Outlook on US Strength, China Fiscal Support****IMF, “2024년 세계 GDP 3.1%, 미국은 2.1% 예상”**

- IMF는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. 미국의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과 중국의 재정 부양책에 힘입었다. 그러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는 경고했다.
-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.1%로 전망했다. 작년 10월에는 2.9%로 예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. 그리고 2025년에는 변동없이 3.2%로 전망했다.

Bloomberg 기사

**[부동산]****WSJ: Home-Price Growth Accelerated in November****작년 11월 미 주택 가격 상승 가속화**

- 미 주택 재고가 예상외로 적은 상황에서 미 주택 가격 성장이 가속화되었다. 미 전역의 주택 가격을 측정하는 S&P CoreLogic Case-Shiller National 주택 지수는 작년 11월에 그 전년도와 비교해 5.1% 성장했다. 이는 지난 10월의 4.7%보다 더 오른 것이다
-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12월 기준 주택 판매 가격 중간값이 전년 동월 대비 4.4% 상승한 38만2천6백불을 기록했다.

WSJ 기사

**WSJ: The Real-Estate Downturn Comes for America's Premier Office Towers****미 최고급 고층 사무실 빌딩 침체**

- 그동안 임대산업을 잘 헤쳐 나갔던 최고급 빌딩 임대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. 이들 빌딩 사무실의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으며 임대율도 둔화되고 있다.
-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임차인들이 비용에 민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[오일]

### Bloomberg: Oil Dips as Market Weighs Middle East Tensions Against Demand

유가 이틀 연속으로 떨어지다 ... 수요 둔화 전망이 원인

- 요르단에서 미군이 공격당한 것에 미국에 대응할 것이란 시장 전망이 커지면서, 유가가 떨어졌다.
- 브렌트 유가 오늘 화요일, 배럴 당 82불 아래에서 거래됐으며, 이틀 연속 하락했다.
- 미국은 여전히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으며, 비OPEC 국가들의 탄탄한 원유 공급과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. (참고: 유가 변동성이 심하므로 이 기사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)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 Bloomberg: As Demand for Fast Deliveries Surges, Companies Struggle With the EV Transition

운송 업체들,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 겪다

- 거대 운송 업체들이 기존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친환경 운영 방식을 약속했지만, 그 약속을 축소하고 있으며, 급증하는 배송량 때문에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.
- 급격한 변화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. 전기 트럭의 초기 비용은 내연기관 트럭에 비해 최소 2만 달러 비쌀 수 있다. 연료비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,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.
- DHL의 개발 부문 책임자인 Yin Zou는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전환을 위한 재무구조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.
- 아마도 더 큰 문제는 전기 충전 인프라다. 일부 업체 기업들에 따르면, 수천개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당 5천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

수 있다고 한다.

#### Bloomberg 기사

### Bloomberg: UPS to Cut 12,000 Jobs, Bring Workers in Five Days a Week UPS, 1만2천여명 구조조정과 사무실 근무 계획 중

- UPS가 1만 2천여개의 일자리를 줄이고, 자사의 코요테 트럭 중개 사업 매각을 계획 중이다. 이는 이 기업의 CEO인 Carol Tomé가 둔화된 수요와 상승한 노조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
- Tomé는 구조조정이 올해 10억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, 올해 직원들에게 주5일 계속 사무실 근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.
- 이 기업의 주가는 7.6% 만큼이나 떨어졌으며, 작년 매출의 9.3% 감소를 기록한 후, UPS는 올해 매출이 1.1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. 올해 매출은 92억 달러와 94억5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며,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추정치인 95억7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다.

#### Bloomberg 기사

### WSJ: Toyota Remains World's Top-Selling Carmaker 토요타,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기업 위치 지키다

- 토요타가 팬데믹과 글로벌 반도체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면서, 글로벌 매출이 신기록을 달성했다.
- 오늘 화요일, 기업 관계자는 Daihatsu와 Hino 자동차를 포함한 글로벌 매출량이 작년에, 7.2% 상승해 1천1백20만 대를 기록했으며, 이는 2019년 1천70만 대를 뛰어넘은 것이라 말했다.
-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, 북미와 유럽의 판매량이 이번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.

#### WSJ 기사

### WSJ: GM Provides Bullish Earnings Outlook for 2024 Despite Easing Prices GM, “올해 실적 전망 낙관적일 것”

- GM이 올해 낙관적 실적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. 전기차와 무인 자동차에 대한 손실이 줄어들고, 노조 파업에서부터 회복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.
-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는 약 7% 상승했다. 이 기업의 4분기 순수익은 5% 증가한 21억 달러를 기록했다. 그러나,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% 감소했는데, 이는 주로 파업과 전기차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이다.

- 이 기업이 CFO인 Paul Jacobson는 GM이 공장 가동을 확대하고,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SUV 같은 전기차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전기차 사업이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**IMF, 올해 세계경제성장 3.1%로 0.2%p 상향..."연착륙 가능성 커"**

**美 2.1%, 中 4.6%로 올리고 유로존도 회복 예상...韓 2.3%로 0.1%p↑  
대부분 지역서 인플레이 빠르게 둔화...중동 분쟁 등은 위험 요인**

국제통화기금(IMF)이 올해 인플레이션 완화와 미국 등 일부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근거로 올해 세계경제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.

IMF는 30일(현지시간) 발표한 세계경제전망(WEO)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.1%로 예상했다.

IMF가 작년 10월에 전망한 올해 성장률보다 0.2%포인트 오른 것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